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라이프찌히 니콜라이 교회 크리스치안 뤼러(Christian Fuehrer) 목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최용준(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논문초록

본 논문은 동서독의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크리스치안 뤼러(Christian Fuehrer)목사의 사상과 사역을 탐구하기 위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뤼러 목사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평화의 상징인 니콜라이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뤼러 목사가 주도한 평화기도회가 어떻게 월요 데모로 연결 되었으며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 혁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겠다. 나아가 통일 이전에 동서독 교회간의 유대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서독 정부와 개신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동독 교회를 지원하여 통일을 준비하여 독일의 통일에 개신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밝히겠다.

주제어: 독일의 통일, 독일 개신교회, 니콜라이교회, 평화기도회, 비폭력

I. 서론

매년 10월 3일은 대한민국에서 개천절로 지키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 날이 통독 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로 지키는 국경일이다. 독일의 통일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독일 개신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한 독일의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는 구 동독지역 라이프찌히(Leipzig)의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 담임 목사로서 월요촛불기도회를 인도하였던 크리스치안 뤼러(Christian Fuehrer) 목사이다. 그는 독일의 평화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영적 지도자이기에 그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1. 크리스치안 뤼러 목사의 생애

크리스치안 뤼러는 1943년 구동독 지역인 랑언로이바-오버하인(Langenleuba-Oberhain)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한 후 1968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작센 주의 라스타우(Lastau)와 콜디츠(Colditz)에서 12년간 목회하였다. 그 후 1980년에 라이프찌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니콜라이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세 번이나 사양했지만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한 것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던 중 마침내 그 초청을 수락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니콜라이 교회의 제 122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후 그는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된 월요평화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나중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월요 데모로 확산되어 결국 구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통일 후에도 뤼러 목사는 실직자들을 돕기 시작하였고 평화 기도회를 계속 주관하다가 2008년 3월 30일 예배를 인도하고 은퇴한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에 *Und wir sind dabei gewesen: Die Revolution, die aus der Kirche kam*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교회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였고(2012) 평화적인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종류의 상을 받았다.

2. 평화의 상징 니콜라이 교회

독일 중동부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찌히는 구동독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위상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교통의 요지이기에 수난도 많이 겪었다. 30년 전쟁과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도시 4분의 1이 파괴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라이프찌히 시민들은 유난히 강한 자긍심을 가졌고 오랜 상업 전통으로 확립한 국제성과 수준 높은 문화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이미 중세 때부터 상품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1985년부터는 세계 최초 표준박람회(Mustermesse)를 개최하는 전통을 쌓아왔다(blog.naver.com).

이 도시의 중심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1165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이지만 16세기 초에 고딕양식으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니콜라이 교회가 평화의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제단 바로 위 천장 가장 높은 곳에는 외저(A.F. Oeser, 1717-1799)가 그린 평화의 천사가 무지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교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종려나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평화 통일을 예비하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 니콜라스는 비즈니스맨들의 수호 성자로 당시 무역이 왕성하던 라이프찌히를 대표하는 교회에 이 성자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원래 니콜라이(Nikolai)라는 말은 니코스(Nikos, 승리자)와 라오스(Laos, 백성)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승리자는 백성이다(Sieger ist das Volk. Winner is the people)’라는 의미이다. 평화 혁명과 관계가 깊은 의미심장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Fuehrer, 2012:).

나아가 이 니콜라이 교회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86),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 박사와의 인연이 깊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교회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3. 평화기도회(Friedensgebete)

튀러 목사가 니콜라이 교회에 부임한 해부터 동독 개신교 청년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1982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5시에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물론 동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따라서 교회는 항상 슈타지(Stasi)라는 비밀경찰의 엄격한 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비교적 정권의 통제를 덜 받던 곳이었으며 또한 동독 교회를 지켜내려는 서독 교회의 지원과 유럽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회를 연다는 명분 그리고 동독 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는 동독 정권의 대외 선전 목적 때문에 그런 활동이 가능했다(blog.naver.com).

1986년부터 튀러 목사는 ‘니콜라이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Nikolaikirche - offen fuer alle)’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87년에는 평화순례대행진을 주관하기도 했고 이듬해인 1988년 2월 19일에는 “동독에서의 삶과 체류(Leben und Bleiben in der DDR)”에 대해 강연하였는데 많은 재야인사들이 참여하여 동독 호네커(Erich Honecker: 1912-1994) 정권에 대한 저항의 시발점이 되었다. 동시에 월요 평화기도회도 계속되었는데 튀러 목사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1989년의 처음 몇 달 동안 동독 정권은 이 기도회를 점점 더 억압하면서 중단시키려 했다. 교회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교회 주변의 수상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체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월요 기도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4. 월요 데모(Montagsdemonstration)

1989년 9월 4일부터 ‘평화기도회’는 양상이 달라졌다.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된 동유럽의 변혁이 거세게 몰아치던 것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정치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었다. 사실 이 날 라이프찌히와 함께 동독의 중심도시인 드레스덴(Dresden)에서는 시민들이 십자가교회(Kreuzkirche)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동독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도 이 날은 기도회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도 이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권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슈타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약 1천 명의 시민들이 “슈타지는 물러가라(Stasi raus!)” “여행의 자유를 달라(Reisefreiheit)”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슈타지의 무력진압이 시작되었고 70명의 재야인사들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1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독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월요 데모(Montagsdemonstration)’가 된 것이다. 슈타지는 체포와 강제진압으로 9월 11일과 18일의 월요 데모에 대응했다. 18일에는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전수진, 1995: 113). 하지

만 9월 25일 평화기도회가 끝난 월요일데모에는 8천명이 합류하면서 저항운동은 더 거세져 갔다. 10월 2일 월요일 데모에는 만 명이 참가하면서, 슈타지와 시위대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군중 규모는 1953년 이후 한 장소에 모인 항의 군중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양창석, 2011: 35).¹⁾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전인 1989년 10월 9일, 8천명의 동독 군인들과 경찰병력이 니콜라이 교회 앞에 집결하였다. 평화기도회가 마칠 무렵 하나의 선언문이 낭독되었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자는 내용이었다. 데모에 나서면서 그들은 “저희는 오늘 출동명령을 거부하여 체포된 기동경찰대와 오늘 출동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 항상 열려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이 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blog.naver.com). 이어서 시작된 시위에는 7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폭력 상황에 대해 동독 정부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 무차별 총격으로 진압한 ‘중국식 해법’을 적용하여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력진압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나 이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기력했던 것이다.

일주일 후, 10월 16일 월요일 데모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10월 30일에는 30만 명 그리고 11월 6일에는 무려 40-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신앙과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 및 장벽 철거 등 민주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드레스덴, 할레, 막테부르그, 슈베린 그리고 동베를린 등 동독 전체로 퍼진 이 혁명은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되어 “우리가 주인이다(Wir sind das Volk).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를 외치며 통일된 독일 지도를 들고 행진하던 군중들은 마침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나중에 동독의 경찰과 군인들도 이 평화시위를 위한 대화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당시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진하고 있다. 실제로 시위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으며, 경찰도 단 한 발의 총을 쏘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 후 동독의 최고 권력자였던 호네커는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역설적으로 그는 재임기간 중 그토록 탄압했던 교회의 도움을 받아 동 베를린 소재 소련 야전 병원으로 도피한 후 구 소련 망명길에 올랐다. 그리고 나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이다(blog.naver.com).

5.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혁명

독일의 통일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독에서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보제(Bose) 라이프찌히 시 공보관은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양창석, 2011: 36-39). 첫째, 시위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평화주의를 신봉했다. 라이프찌히 니콜라이 교회와 베를린의 겐세마네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드리고 시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더 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진압하는 경찰에게 장미꽃을 갖다 주는가 하면 밤에는 촛불을 들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했다. 둘째로 이러한 시위자들이 매우 단결되어 있었고 그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동독 정권은 고르바초프가 반대하고 강제 무력 진압에 서독과의 경제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Szabo, 1992: 15).

튀러 목사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혁명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www.

1) 독 건국 40주년 기념일이었던 10월 7일, 동독 인민 경찰과 슈타지는 라이프찌히 이외에도 베를린, 드레스덴, 할레, 에어푸르트, 포츠담 등지에서 일어난 시위를 강력히 진압하였다. (양창석, 2011: 35)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니콜라이 교회”는 1989년 가을에 실체가 되었고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이 교회는 구동독의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켰다: 동독을 떠나려 했던 사람들, 단지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들과 동독 비밀경찰(Stasi) 요원들, 교회 임직자들, 독일통일사회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원들,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1949년에서 1989년까지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모든 상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실체가 되었다. 라이프찌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히 450년이 지난 1989년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1989년 5월 8일,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들은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 후 검문검색이 강화되었고 평화 기도회 기간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었다. 국가 기관들은 더욱 이 평화기도회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변두리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 월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기도회에 참여하려다 체포되었고 “일시적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최대수용인원인 2000명의 좌석도 부족하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10월 9일의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사복형사들이 포위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이 이미 구동독 정권 40주년을 기념한 1989년 10월 7일에 일어났다. 이 날, 10시간동안이나 체복을 입은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트럭에 실려 끌려갔다. 그러자 언론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반동혁명”을 진압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것이 1989년 10월 9일 상황이었다.

나아가 1000명의 독일통일사회당원들은 니콜라이 교회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중 600명이 이미 오후 2시에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사실상 비밀경찰과 같은 감시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비밀경찰들이 매우 월요일마다 산상 수훈의 8복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이곳이 아니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들은 복음을 들었다. “부자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적을 처단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셨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지 몸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평화 기도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일어났다. 축도가 끝난 후 라이프찌히의 계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마수르 교수는 다시금 비폭력을 강조했다. 교회와 예술, 음악과 복음이 하나로 결속되어 당시의 위협적인 상황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2000명 이상 참여한 기도회가 끝나자 교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 손에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두 손으로 촛불을 들어야 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돌이나 몽둥이를 동시에 들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비폭력 정신은 군중들을 사로잡았고 평화적인 힘으로 나타났다.

군인들과 경찰들은 철수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자 그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체면을 구기지 않았다. 다만 놀라운 안도감이 지배했을 뿐이다.

이러한 비폭력 운동은 몇 주간만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 힘은 결국 당과 이데올로기적 독재를 붕괴시켰다.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약한 자들을 높이신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경험했다. 교회에 수천 명이 있었고 시내 중심을 에워싼 수만 명이 거리에 있었지만 가게의 유리창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의 믿기 어려운 힘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구동독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홀스트 진더만(Horst Sindermann)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촛불과 기도는 예외였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실업자들을 위한 기도회다. 그러므로 니콜라이 교회는 지금도 과거와 같이: 예수님의 집, 소망의 집, 새로운 시작의 장소요 근원으로 남아있다.

그날의 무혈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광장 곁에 세워놓은 대리석으로 만든 종려나무 기둥 조각은 어떤 경우이든 비폭력적인 저항과 평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휘러 목사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 사건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Fuehrer, 2012: 9-10):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목회자로서 이 모든 사건에 직접 참여한 필자는 이것이 결국 수년간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설교 함으로 비폭력이라는 예수님의 정신에서 귀결된 평화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행동 원칙으로서의 비폭력은 교회에서 시작되어 대중들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거리에서 실천되었다. “비폭력(Keine Gewalt!)”을 외치자 결국 그렇게 견고하던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우리 독일인들은 지금까지 혁명을 성공시킨 예가 없다. 이 평화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한 최초의 경우이다. 우리 정치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사건이다. 성경적 기준이 낳은 기적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은 무참하게 파괴되었으나 20세기 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와 참여한 모든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우리 도시와 여러 도시들과 마을에 주신 은혜였다. 우리 민족 전체에 허락하신 은혜였다...

이것은 성과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출신,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믿음의 역사이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 더욱 내가 성숙하도록 역사한 성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따라서 필자는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함을 믿는다. 이 평화 혁명이 그 증거이다. 벤 구리온의 말처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현실주의자이다.” 그러므로 결코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²⁾

6.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결속 (Die besondere Gemeinschaft)

6.25 동란 및 휴전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한과는 달리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부단한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가령 전화, 방문, 우편 및 소포 교환 등의 개인 상호간의 접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Scheuch, & Scheuch, / 김종영 역, 1992: 172). 동, 서독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독일인들은 상호 소식을 알릴 수 있었다(Koehler, 1985: 147-163).³⁾

여기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1989년에 일어난 이 극적이고 역사적인 통독의 배후에는 사실상 분단의 기간 동안에도 서독 교회 성도들의 동독 교회를 향한 꾸준하고도 신실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동독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가 동독 교회 및 국민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반면, 서독 교회는 매년 동

2)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Für mich, der ich als Pfarrer der Nikolaikirche an den Ereignissen unmittelbar beteiligt war, resultiert die Friedlich Revolution aus dem Geist Jesu der Gealtlosigkeit, die in den Kirchen jahrelang besonders durch die Bergpredigt Jesu vermittelt wurde. Die Gewaltlosigkeit als Handlungsmaxime drang heraus aus den Kirchen, ergriff die Massen und wurde konsequent auf der Strasse prktiziert. Mit dem gewaltigen Ruf „Keine Gewalt!“ wurde ein letztlich ungeliebtes und bedrückendes System hinweggefegt.

Uns Deutschen war bis zu diesem Zeitpunkt noch nie Revolution gelungen. Die Friedliche Revolution ist die erste, die ohne Butvergiessen und dazu erfolgreich vonstattenging. Ein einmaliger Vorgang in unserer politischen Unheilsgeschichte. Ein Wunder biblischen Ausmasses!

Dazu am Ende eines Jahrhunderts, das durch beispiellose Gewalt im Ersten und Zweiten Weltkrieg und gnadenlose Vernichtung des Volkes, aus dem Jesus geboren wurde, furchbar gepraeagt war!

Ich kann das nur als Gnade bezeichnen. Gnade an unserer Kirche und all den Kirchen, die ebenfalls beteiligt waren. Gnade an unserer Stadt und anderen Staedten und Doerfern. Gnade an unseren ganzen Volk...

Es ist keine Erfolgsgeschichte, sondern eine Glaubensgeschichte, die mit meiner Herkunft, meiner Familie, der Kirchengemeinde und allen menschen, die mich auf dem schweren und schoenen Weg begleiteten, untrennbar verbunden ist. Der Bibel verdanke ich, dass ich mit Wundern gross geworden bin. So begriff ich, dass mehr moeglich ist, als moeglich ist. Und erlebte selbst das Wunder der Friedlichen Revolution. Wie sagt Ben Gurion: „Wer nicht an Wunder glaubt, is kein Realist.“

Darum: Vorwaerts und nichts vergessen!“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호,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분단에서 통일까지」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34-68 참조.

독 교회에 물질 및 현금으로 섬기고 도와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었다. 결국 베를린 철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교회 간에는 하나된 결속감이 살아 있었으며 이 하나됨이 이 테올로기의 벽도 무너뜨린 것이다.

동독 개신교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9년에 「독일교회연합」(EKD: Evangelische Kirchen in Deutschland)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서독 교회와 하나의 교회로 남아 있었으나 1968년 무신론적 동독 정권이 새 헌법을 공포하면서 서독 교회와 나누어져 「동독 개신교 연맹」(BEK: Der Bund der Evangelische Kirchen in Deutschland)이 1969년 출범하게 되었다(주도홍, 1999: 67). 하지만 두 교회는 내적으로 결속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교회법 4조 4항에서 "동독과 서독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각자의 기관을 통하여 동반자적 자유를 가지고 함께"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유대 관계(die besondere Gemeinschaft)"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일의 순간까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유지시켰다(주도홍, 1999: 67-68). 주도홍은 이 관계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blog.naver.com).

동서독 교회는 이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양편의 멤버들로 구성되는 "자문단(Beratergruppe)"과 "협의단(Konsultationsgruppe)"을 구성하였는데, "자문단"은 교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협의단"은 사회참여적인 세계 평화와 화해의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모임은 두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사전에 모이는 사적 모임의 성격도 강하였는데, 어떤 때는 서로의 일상적인 안부와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고, 분단의 민족의 아쉬운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서로간의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필요할 때는 은밀한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임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이 모임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서독교회의 동독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동독교회는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동독정권의 교회가 스스로 자멸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폄박 정책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을 끊는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독일교회의 유일한 재정수단이었던 교회세 제도를 법으로 금하였고, 신도들에게는 일반 동독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불이익을 주었다. 심지어 신앙 활동을 범죄활동으로 규명하여 감옥에 가두는 등, 문자 그대로의 공산당식 신앙박해 전략을 교회를 반대하여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교회를 서독교회는 순수한 사랑에 의해 물질적으로 도왔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여기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명목 있는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그러면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도와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돈의 사용 용도를 묻게 되면 이러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그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지원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으며, 또한 단회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아닌, 지속적이고 인격적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년 동독교회를 위한 물질적 지원이 한화로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도움은 여러 면에서 자상한 지혜를 요구하였는데,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 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재로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론 서독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그리고 동독정권의 묵인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서독 정부가 이 교회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막후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난게 도왔다는 사실이다. 서독교회가 시행한 동독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동독교회를 돕는 A형과 정치범 등의 석방을 위한 B형이 있었는데, A형을 위해서는 반액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B형을 위해서는 전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웠다. 이는 단지 서독교회의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의 교회뿐만 아니라, 동독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화 획득뿐 아니라, 신앙의 박해 가운데 처한 동독교회를 살리고 활성화 시켰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유는 동독의 공산정권을 더욱 견고히 유지시키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달랐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교회의 계속적인 복음전파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여 유물론주의적 사회주의를 대적한 저항태양을 형성시켜 결국은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러한 동서독의 "특별한 유대 관계"는 결국 정치적으로 분단된 동서독을 견고히 묶어주는 연결고

리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독일교회는 로꿈(Loccum) 선언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룹은 다름 아닌 "디아코니(Diakonie) 재단"의 활동이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은 다름 아닌 그 "섬김의 신학"이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건대 앞서 언급한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이미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즉, 독일인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사랑'의 실천은 이미 생활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정신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확인도 우리는 하였다. 디아코니의 활동은 "항상 살아있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시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떠한 기관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물질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의 활동은 결국 동서독의 인간관계를 "인제나 견고히" 묶어주는 "사랑의 띠"였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서독 교회의 사랑이 순풍에 돛단배처럼 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님도 확인하였다.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도움을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고가 있어야만 했다. 여기에 분명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서독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랑의 프로들이었다.

이처럼 동서독 교회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서독개신교회가 동독개신교회를 향해 놀라운 정도의 섬김과 봉사를 계속했기 때문이며 서독 정부 또한 서독개신교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동독개신교회를 지원하여 보이지 않는 결속을 다져왔으며 그것이 때가 되어 통일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크리스치안 뤼터 목사를 중심으로 라이프찌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월요평화기도회가 어떻게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가져왔는지를 보았다. 니콜라이 교회는 분명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문을 열었다. 나아가 서독의 개신교회가 정부와 협력하면서 동독개신교회와의 특별한 유대와 결속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희생적 사랑과 인내로 섬긴 것도 보았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간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혹은 여러 단체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 또한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남북한 모두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며 남한의 경우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 발전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평화와 화해의 복음 메시지가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분열을 깊이 회개하고 연합하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과 일치 운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요 17)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의 분열을 극복해 나갈 때 남북한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휴전선도 베를린 장벽처럼 마침내 무너져 평화적으로 남북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최용준, 2006: 162-67).

넷째로 한국교회와 정부는 서로 협조하여 북한의 지하교회에 직,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교회 차원의 지원에 대해 비협조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해가 된 적도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제 과감히 바꾸어 전략적으로 함께 긴밀히 의논하면서 통일의 씨앗을 계속

해서 뿌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은 비교적 입북이 용이하며 보다 다양한 사역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더 헌신적이며 지혜롭게 섬길 때 통일의 축복을 낳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선교단체들, 인권운동가들, 구호기관들 및 여러 국가 정부들은 의외로 많이 있다. 이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난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책임 의식과 사명을 새롭게 고취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 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는 독일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영적 리더(Fuehrer)로서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평화에 헌신 함으로 철의 장막으로 무너뜨린 이 분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이러한 영적 리더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 해야 하겠다. (눅 18:1-9)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비폭력과 평화는 이 땅의 어떤 무력보다 강하며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딤후 4:3) 능력이 있음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지혜롭게 적용할 때 한반도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용호 (1998)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분단에서 통일까지」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 양창석 (2011)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서울: 늘품플러스.
- 전수진 (1995) 「도이칠란트의 통일」 서울: 집문당.
- 주도홍 (1999),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Führer, Christian. (2012) *Und Wir sind dabei gewesen: Die Revolution, die aus der Kirche kam* Berlin: List Taschenbuch.
- Koehler, Anne. (1985) “Wiedervereinigung - Wunsch und Wirklichkeit. Empirische Beitrage zur Frage der nationalen Orientierung unter innerdeutschen Aspekten” In: Werner Weidenfeld (Hg.): “Nachdenken ueber Deutschland”, Koeln, S. 147-163.
- Szabo, Stephen F. (1992) *The Diplomacy of German Unific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Scheuch, Erwin K. & Scheuch, Ute. (1992) *Wie Deutsch Sind Die Deutschen?* 김종영 역, 「독일 통일의 배경」 서울: 종로서적, 1992.
-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yyn&logNo=20131323557&viewDate=¤tPage=1&listtype=0 2014년 5월 5일 16:30 검색.
- <http://www.nikolaikirche-leipzig.de/englisch-topmenu-100/63-the-events-in-fall-1989/64-the-events-in-fall-1989> 2014년 5월 5일 17:30 검색.

ABSTRACT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role of the church: focusing on the thought and ministry of Rev. Christian Fuehrer at the Nikolai church in Leibzig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role of the church focusing on the thought and ministry of Rev. Christian Fuehrer. First of all, the life of Rev. Fuehrer is briefly dealt with. Then Nikolai church in Leipzig is seen as the symbol of peace. After that, the process is investigated how the peace prayer meeting was developed into Monday demonstration and finally brought about the peaceful revolution of unification. Furthermore,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east German protestant churches and the support of the West German government to this relationship are discussed to demonstrate how the German protestant church made a crucial contribution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Key Words: German unification, German protestant church, Nikolai church, Prayer for peace, non-violence.